

# 김돌산 심방 본풀이 채록

## 맹감본풀이

날(日)은 어느날, 돌(月)은 어느 돌, 올 금년 해(日)는 갈림길 이천십팔년도 무술년 돌(月) 중에는 백록 팔월달 쓰무허고 아흐렛날 됩네다.

오늘 천수방액(天授防厄)을 막져 허시는다. 이 액을 방액 막는법은 옛날 주녕국 소소만이가 사옵데다.

장겐 가는 것이, 장승상 또님애기영 부베(夫婦)간을 삼으난, 애긴 낳는 게 아들 툐 밀고루<sup>1)</sup> 보리고루 오망삭삭 나난 가난허고 서난헛데다.

가난하고 서난허난, 어린 애기덜은 배고프난, 밥 줍센 각각 울어가난, 주녕국 소서만이 각신 머리 끈연<sup>2)</sup> 주녕국 소소만이신디 강,

“장에 강,<sup>3)</sup> 이거 풀양<sup>4)</sup> 쓸<sup>5)</sup> 반양 읍센.”

허난, 걸랑 기영 허렌 헤연. 각시 머리 끈은 거 앓양<sup>6)</sup> 강 포난,<sup>7)</sup> 돈 석냥을 받았구나. 돈 석냥을 받으난 혼편더레 바라보난, 부지땡이 곱은<sup>8)</sup> 거 놓안 두상두상 허엿구나.

“요건 무시거<sup>9)</sup> 허는 거꽈?”

“노는<sup>10)</sup> 꿩에 불 질르민 절궁절강 맞아집네다. 뛰는 노리에 불 질르민 절궁절강 맞아집네다.”

이건 얼마나 허니겐 허난, 주녕국 소소만이한테 풀아사 헛니덴 허난,

“나가 주녕국 소소만이가 됩네다.”

“얼마 받으쿠과?”

돈 석냥을 받으쿠덴 허난, 돈 석냥을 주언. 마세조총을 산 뚜러메영<sup>11)</sup> 오람구나. 소만이 각신 어느제랑 장에 강 머리 풀양 쓸 반양 오민 배고픈 애기덜 밥 줍서. 각각 우는 애기들 배불리 밥 멕이코 허단 보난, 소소만인 오는 게 부지땡이 닳은 거 뚜러메영 오람구나.

이 어른아, 저 저른아. 쓸 반양 오민 애기덜 배불리 밥 헤영 먹이젠 허단 보난, 부지땡이 곱은 거 상 오람수겐 허난,

이 사름아, 나 굳건<sup>12)</sup> 들어보라. 쓸은 밥 헤영 혼때 먹어불민 다시 내일은 배가 고

1) 밀고루: 밀가루.

2) 끈연: 끓어서.

3) 강: 가서.

4) 풀양: 팔아서.

5) 쓸: 쌀.

6) 앓양: 갖고.

7) 포난: 파니.

8) 부지땡이 곱은: 부지땡이 같은.

9) 무시거: 무엇.

10) 노는: 나는.

11) 뚜러메영: 둘러메고.

플거고 이 마세조총 상 온건, 노는 썩에 불 질르민 절궁절강 맞아지고. 뛰는 노리<sup>13)</sup>에 물 질르민 절궁절강 맞아진덴 허난,

소만이 각신 앞집이 간 쏘 혼뉘 꾸어단 메를 헤연. 소만인 저 산천에 올랐구나. 오락 내력 오락 내력 허는디 해는 열락서산 다 지엇구나. 어옥폐기 의지헤연 목은각단<sup>14)</sup> 새각단 영덕<sup>15)</sup> 돌 의지헤연 앗아시난, 이밤 저밤 야사삼경이 뉘여가난,

“주녕국 소소만아, 소소만아. 땡땡 그르르 땡땡 그르르.”

아이고, 바싹 무습고<sup>16)</sup> 꿈짜 안헤연 잇당.<sup>17)</sup> 날이 흰허게 먼동 금동<sup>18)</sup> 대명천지가 붉아오난, 소만이가 불르는 짝더레 간 보난 백년 데구리가<sup>19)</sup> 잇입데다.

백년 데굴이가 말을 허뉘,

“소만아, 느 가진 총은 나 건디. 난, 허정승 아들인디 한라산 산 좋고 물 좋고 구경처 좋덴 헤연 오랏단, 비바람에 난 죽언 백년 데굴이가 뉘엇구나. 날 돌아당<sup>20)</sup> 상물<sup>21)</sup> 숲양<sup>22)</sup> 목욕 시기고 고폡(庫房)에 모성 초호루 보름 헤여주민, 너네 집이 천하 거부제로 잘 살게 해주키여.”

허난,

“결랑 기영 협서.”

멩텡이에 백년 데굴이 담안 오란 상물 숲양 목욕 시건 고폡에 상단에 모성 초호루 보름 헤여가난, 난 썩에 불 질르민 절궁절강 맞앗구나. 노는 노리에 불질르민 절궁절강 맞앗구나.

천하 아레 잘 살아집데다. 큰집도 허영 살고, 밧도<sup>23)</sup> 헤영 살고 부제팔명(富者八命) 뉘게 잘 살아지어가난,

허를날은<sup>24)</sup> 주녕국 소소만이가 썩 사농 메 사농 허레 가불고 연양 상고팡에서 백년 데굴이가 옥황에 천기를 짚영보난, 옥황에서 삼 처서가 주녕국 소소만이 잡으레 내일 모레 소오시 날은 내리켄 허난,

“아이고, 나 엇이민 는 어떻 살멍, 느 엇이민 난 어떻 사느니. 소만아, 소만아. 나 잇어난 디 돌아다<sup>25)</sup> 도라.”

땡땡그르르 땡땡그르르 헤여가난, 소만이 각신 불 숲단 이놈이 백년 데굴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서 가난 노망 헤염젠 헤연. 백년 데굴이를 부지깽이 콧고냥 꿰어단 뉘

12) 곤건: 말하는 거.

13) 노리: 노루.

14) 목은각단: 오래된 띠.

15) 영덕: 언덕.

16) 무습고: 무섭고.

17) 잇당: 있다가.

18) 금동: 금동(金東). 동쪽 하늘이 밝아옴.

19) 데구리가: 해골이.

20) 돌아당: 데려다가.

21) 상물: 향 가지를 넣고 끓인 물. 신성하게 쓰려고 어느 자리에 뿌리거나 얹하여 입관을 하려 할 때 시신을 씻거나 함.

22) 숲양: 삶아서.

23) 밧도: 밧도.

24) 허를날은: 하룻날은.

25) 돌아다: 데려다.



“아이고, 사자님아. 우릴 돌양 갑서.”

처가속도,

“날 돌양 갑서.”

애기덜토 바지가달에 몬 돌아지영 우리도 돌양 갑센 헤여가난, 주녕국 소소만이 대신 소소필이를 심영갓구나.<sup>32)</sup>

소필이 심영 저싱은 가난, 저싱 염라대왕님이 인간에 간 뉘물을<sup>33)</sup> 먹었으니 삼처서를 죽이젠 헤연 전옥에 하옥 시겼구나.

하옥을 시기난 지동토인신디 혈말이나 엇갓느냐? 혈 말은, 주녕국 소소만이 곧 서른 소고전명이 아니라 우터레<sup>34)</sup> 열십제 씨어<sup>35)</sup> 놓고, 날아가는 새 한 마리 앓저 줍센 허난,

“결랑 기영 허라.”

지동토인신디 문세(文書)를 쓰게 멘들아<sup>36)</sup> 두고 모리 뒷날 소오시가 뉘여가난, 방에 칼 씨원 죽이젠 허여가난, 염라대왕님이 허는 말이,

“넌 혈 말이나 엇갓느냐?”

“예. 죽을 때 죽어도.”

삼처서 관장님이 허는 말이,

“다시 소소만이 곧 서른 소고전명인가 봐 줍서.”

지동토인신디 전갈을 허난, 동방세기 삼천년 도업(都業) 허렌 헤엿우다. 석삼 제(三字) 우에 열십 제(十字) 굿어 놓고, 놀아가는<sup>37)</sup> 새 혼 마리 찍으난, 동방세기 삼천년 도업허렌 현 법이 잇입네다.

주녕국 소소만이라도 곧 서른 소고전명이 메기라도<sup>38)</sup> 관디(冠帶) 삼베, 띠 삼베, 은동이에 대백미, 늦동이에 소백미 수술이 남동이에 잔뜩 시꺼근<sup>39)</sup> 천수방액 삼처서 관장이 막으난, 주녕국 소소만이 곧 서른 소고전명이 동방세기 삼천년 도업허렌 헤엿우다.

그 법으로 우리 인간 백성덜 운수내기 불길허민, 쉼<sup>40)</sup> 없어 몰로나,<sup>41)</sup> 몰 없이 쉼로나, 쉼로 데령 몰로 데령 허는 법. 적송베오기(赤胸白玉鷄), 적송베오기 엇이민, 지레 맞인<sup>42)</sup> 잘라지<sup>43)</sup> 발에 맞인<sup>44)</sup> 발강게 남동이엔 대백미 늦동이엔 소백미 은도 천량 돈도 구만량 허영 천수방에 막는 법입니다예.

32) 심영갓구나: 심어서 갔구나. 잡아 갔구나.

33) 뉘물을: 뇌물을.

34) 우터레: 위에.

35) 씨어: 씨.

36) 멘들아: 만들어.

37) 놀아가는: 날아가는.

38) 메기라도: 없어도.

39) 시꺼근: 심고서.

40) 쉼: 소.

41) 몰로나: 말로나.

42) 지레 맞인: 키에 맞는.

43) 잘라지: 기원자(祈願者)의 키로 재어 연령수에 맞은 길이의 피륙.

44) 발에 맞인: 발에 맞는.